

駱賓王 詩文 成就의 재인식

白 承 錫*

<目 次>

I. 들어가는 글	III. 낙빈왕의 文章
II. 낙빈왕의 詩歌	1. 천하를 뒤흔든 토벌 檄文
1. 以歌行爲冠	2. 감동적인 鄉親의 情
2. 獨步一時	3. 새로운 관직을 위한 干謁
3. 托物寓意, 借物抒情	IV. 맺는 글

I. 들어가는 글

初唐시기 문학혁신의 선구자이며 “初唐四傑” 중의 한 사람인 駱賓王은 新·舊《唐書》傳記의 “어려서 문장을 잘 지었다(少善屬文)”·“7세에 시를 읊조릴 수 있었다(七歲能賦詩)”¹⁾는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시에 흔치 않던 조숙한 문학천재였다. 陳熙晉 <續補唐書駱侍御傳>의 고증에 따르면 낙빈왕은 博昌과 兗州에서 청소년기에 배움의 시기를 보내며 20여 수의 詩와 10여 편의 書·啓·表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²⁾, 이 같은 작품 숫자로 미루어보면 일생동안 그에게는 적지 않은 저작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낙빈왕은 만년에 武則天을 반대하는 徐敬業 반군에 참가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舊唐書》(台北: 鼎文書局, 1979), 5006쪽; 《新唐書》(台北: 鼎文書局, 1979), 5,742쪽.

2) 陳熙晉, 《駱臨海集箋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394쪽.

했다가 반란 실패로 피살되었는지 아니면 승려가 되어 은둔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때 그의 문집은 散失되었다. 新龍 元年(704) 唐 中宗이 復位후에 王室에 대한 낙빈왕의 忠誠이 재평가되어, 兗州人 鄒雲卿에게 칙령을 내려 흩어져 있던 그의 遺文을 찾아 《駱賓王文集》 10卷을 편찬하게 하였다. 新·舊 《唐書》중의 낙빈왕 傳記는 모두 이 著錄에 의거하였다. 이 문집이 오랫동안 전해지다 보니 또 많은 부분 산일되고 달라졌다. 明清 시기 민간의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던 판본들은 권수도 동일하지 않고 문집의 명칭도 제각각으로, 明 金繼震本 《駱先生輯》 6卷, 顏文選本 《駱丞集》 4권, 籍貫의 명칭을 붙인 《義烏集》, 관명을 붙인 《武功集》 등도 있었으며, 《侍御集》, 《靈隱子集》, 《臨海集》 등과 같은 것도 있었다. 明代 胡應麟 때부터는 낙빈왕이 마지막 관직에 머물렀던 곳의 명칭을 붙인 《駱臨海集》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인정되었다. 淸 道光 연간에 이르러, 義烏 출신 陳晉熙가 같은 고향 선현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각종 판본을 참조하면서 흩어져 있던 작품들을 輯錄였다. 또한 《文苑英華》, 《全唐詩》, 《全唐文》 등으로부터 약간 증보하여 자세하게 고증하고, 이를 다시 편년으로 나누었으며, 아울러 詩文 속에서 언급하였던 輿地·職官·典章·制度·成語典故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석하여 《駱臨海集箋注》 10권을 편찬하였다. 《駱臨海集箋注》는 1961년 中華書局 上海 편집소에서 활자 인쇄로 출판된 이후, 1985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보충 교정하여 재출판 되었다.³⁾ 이 판본의 편집 순서는 먼저 詩, 다음이 賦頌, 그리고 表·啓·書·狀·對策·序 등인데, 작품은 모두 詩 124題133首(卷1에서 卷5), 賦頌 3篇(卷6), 文48篇(卷7에서 卷10)이 있다.⁴⁾

낙빈왕의 이 작품들은 문사의 수식이 화려하며 부드럽고 활기가 없던 당시의 문단에 淸新하고 雄建한 공기를 불어넣었던 초당시기 文風 혁신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그러나 낙빈왕을 포함한 “四傑”은 “浮躁淺陋”, 혹은

3) 台灣世界書局에서도 1962년 《駱臨海集箋注》을 출판하였고, 2003년 台灣三民書局에서 출판된 新譯本 《駱賓王文集》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4) 駱祥發, 《初唐四傑研究》(北京: 東方出版社, 1993) 235쪽; 258쪽 참조.

“華而不實”, 혹은 “輕薄爲文”이라는 곡해와 비평을 받기도 했다. 사실 이와 같은 평가는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재기가 뛰어나고 도도했던 “四傑”에 대한 시기와 질책에서 나온 것일 따름이다.⁵⁾ “사걸”의 정확한 평가는 그들의 詩文을 자세하게 살펴 선명한 문학적인 특색과 문학사적인 지위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야만 한다. 본고는 낙빈왕의 문학적인 성취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고찰은 아니다. 낙빈왕의 賦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한 바가 있기에⁶⁾, 여기에서는 그의 詩와 文의 성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낙빈왕의 문학적인 성취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이해를 완성하여 낙빈왕과 “초당사걸”에 대하여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를 바로잡아 보고자 한다.

II. 낙빈왕의 詩歌

낙빈왕 시가 연구의 이전 논저들을 살펴보면, 그의 시가 작품들을 題材內容과 형식적인 특색으로 분류하고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다.⁷⁾ 이와 같은

5) “경박하고 얕다(浮躁淺陋)”는 劉肅 《大唐新語》에 보인다: “時李敬玄盛稱王勃、楊炯等四人, 以示行儉. 曰: 士之致遠, 先器識而後文藝也. 勃等雖有才名, 而浮躁淺露, 豈享爵祿者? 楊稍似沈靜, 應至令長, 並鮮克令終. 卒如其言; “형식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다(華而不實)”라는 것은 張說 《贈太尉裴公神道碑》에 보인다: “在選曹, 見駱賓王、盧照隣、王勃、楊炯, 評曰楊炯雖有才名, 不過令長, 其餘華而不實, 鮮克令終. 見蘇味道、王劇, 嘆曰: 十數年外, 當居衡石. 後各如其言”; “경박하게 시문을 짓는다(輕薄爲文)”는 것은 杜甫 <戲爲六絕句>에 보인다. 두보는 이 시에서 사걸에 대한 비평을 반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楊王盧駱當時體, 輕薄爲文哂未休. 爾曹身與名俱滅, 不廢江河萬古流”라고 하여, 이상과 같은 곡해와 비평은 “사걸”이라는 칭호와 함께 그들의 생존 당시에 이미 존재했었다. 駱祥發, 앞의 책 221쪽 참조. 任國緒, <初唐四傑非浮躁淺陋之人辯>, 《北方論叢》 1984: 2(1984.3), 참조.

6) 白承錫, <駱賓王賦研究>, 《中國語文學》 49(2007.6)

7)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駱祥發, 《駱賓王評傳》(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7)에서는 낙빈왕의 詩歌를 “抒情詩”·“邊塞詩”·“景物詩”·“其他題材作品(詠史懷古詩, 艷情詩, 弔唁詩)” 등 4종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이어서 시가의 예술적

분류 연구법은 낙빈왕 詩歌 내용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낙빈왕 시가 창작의 특색을 완전하게 포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낙빈왕은 詩歌의 題材 내용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體裁 형식 측면에서도 큰 공헌을 했기에 체제 창작 방면으로도 살펴봐야만 낙빈왕 시가의 또 다른 일면의 風格과 특색 그리고 문학사적인 공헌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2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낙빈왕 시가의 성취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1. “以歌行爲冠” - 七言歌行體 詩歌의 창작 특색

聞一多是 《唐詩雜論·四傑》에서 “노조린과 낙빈왕은 7언 가행시에 뛰어나고, 왕발과 양형은 5언 율시에 뛰어나다(盧駱擅長七言歌行, 王楊專工五律)”⁸⁾라고 지적한 것처럼, “초당사결” 시가의 체제 형식은 각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언급일 뿐으로, “사결” 시가의 실제적인 전모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王勃에게도 자못 높은 평가를 받았던 7언가행시 작품이 있지만, 단지 그 성취가 노조린과 낙빈왕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할 뿐이라는 것도 함께 설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노조린과 낙빈왕의 7언가행시 작품 수량은 많지 않지만, 그 당시 시단에 뛰어난 공헌이 있었다. 특히 낙빈왕의 장편 7언가행시는 새로운 題材의 개척과 내용의 심화, 그리고 구성의 신중함과 엄밀함 등의 측면 뿐 만 아니라, 氣象의 광활함과 風格의 웅건함 그리고 詩語 수식의 풍부함 등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胡應麟이 “가행시는 낙빈왕이 으뜸이다(歌行, 駱賓王爲冠)”⁹⁾라는 평

특색을 다루었다. 그리고 安炳國, 《駱賓王詩研究》, 《中國文學》 11(1984)에서는, “言情詩·寫景詩·邊塞詩·詠物詩·詠史詩”와 “기타”로 분류하였고, 또한 형식 특색으로 “修辭·表現技巧(對偶, 用韻, 用事)·詩語” 등의 측면에서 낙빈왕의 시가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8) 聞一多, 《唐詩雜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24쪽.

9) 胡應麟, 《詩藪》(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77쪽.

가를 받았다.

낙빈왕 7언가행시의 대표작은 《舊唐書》의 낙빈왕 전기 중에 “당시에 절창이라고 여겨지다(當時以爲絕唱)”¹⁰⁾라고 언급했던 <帝京篇>이다. 이 작품은 盧照隣의 <長安古意>와 함께 초당 시단에서 歌行體 詩歌의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낙빈왕은 중형무진하고 자유분방한 필치로 시의 첫 부분에 帝京인 長安 건축의 웅장함과 궁궐의 장관을 묘사하여, 大唐 제국의 번영과 강함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山河千里國,	산과 강물이 에둘러 있는 帝京 사방 천리 지역
城闕九重門.	임금 사는 皇宮의 구중궁궐이 있는 곳이다.
不睹皇居壯,	帝京의 장려함을 친히 보지 않으면,
安知天子尊.	임금의 존귀함을 어찌 알 수 있으리.
皇居帝里崑函谷,	임금 사는 제경에는 崑山과 函谷關 울타리 호위 삼으며,
鶉野龍山侯甸服.	秦 龍水山에는 侯服과 甸服의 광활한 교외지역이 있도다.
五緯連影集星躔,	많은 별들이 한데 모여 하늘에서 반짝이고,
八水分流橫地軸.	온갖 하천은 갈리어 땅위를 흐르도다.
秦塞重關一百二,	진나라 山河 험난한 요새는 둘이 백 개를 당할 만하고
漢家離宮三十六.	한 왕실의 별궁은 서른여섯 채나 될 정도로 많도다.
桂殿陰岑對玉樓,	휘황찬란한 桂殿은 산의 북쪽에 玉堂을 마주하고 있고,
椒房窈窕連金屋.	궁궐 속 깊은 초방엔 그윽하게 金屋에 이어져 있도다.
三條九陌麗城隈,	사방으로 많은 거리가 아름답게 장안성에 퍼져 있고
萬戶千門平旦開.	수많은 집들의 대문은 아침부터 열려있네.
複道斜通鳩鵲觀,	건물 사이 복도는 비스듬히 통해서 鳩鵲觀을 향하고
交衢直指鳳凰台.	중형 교차하여 뚫린 大路는 鳳凰台로 곧바로 이어진다네.
劍履南宮入,	大臣은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남궁으로 들어가고
簪纓北闕來.	高官은 비녀 꽂힌 갓에 끈 늘어뜨리고 북궐로 들어오네.
聲名冠寶宇,	명성은 천하의 앞자리에 놓이고,
文物象昭回.	문물은 해와 달과 별빛 같이 빛나네.
鈎陳肅蘭戺,	별자리에 맞춰 세워진 궁궐에는 돌계단 단정하고,
璧沼浮槐市.	향교 앞 연못에는 장터가 흥성하네.

10) 《舊唐書》, 앞의 책.

銅羽應風回,	누대 위 둥으로 만든 까마귀는 바람 따라 움직이고
金臺承露起.	둥으로 된 기둥은 이슬 받는 承露盤을 바치고 서있네.
校天文祿閣,	文治로써 천록각에서 서적을 교감하고
習戰昆明水.	武功으로써 곤명수에서 水戰을 연습하네.
朱邱抗平臺,	붉은 문 화려한 왕후의 저택은 궁궐인 平臺에 필적하고
黃扉通戚里.	궁궐 대문은 직통으로 황제 인척들이 사는 곳을 향하네.
平臺戚里帶崇墉,	평대와 인척들 사는 곳은 높은 담벼락으로 붙어있고,
酌金饌玉待鳴鐘.	귀중하고 정교한 음식은 종소리 울림을 기다린다네.
小堂綺帳三千戶,	작은 궁전에는 흰색 비단 장막 삼천호나 있고,
大道青樓十二重.	큰길가엔 귀족저택 열 두 겹이나 된다네.
寶蓋雕鞍金絡馬,	보석장식 수레덮개와 꽃무늬 조각 안장에 금 굴레 달고,
蘭窗綉柱玉盤龍.	난초 도안 창문과 수놓은 기둥에는 옥룡이 서려있다네.
綉柱璇題粉壁映,	수놓은 기둥 위 옥 서까래 머리는 후추칠한 벽에 비치고,
鏘金鳴玉王侯盛.	허리장식 금과 옥 부딪혀 째랑째랑 王侯 열기왕성하다네.

이어서 낙빈왕은 또한 오락과 여색에 한껏 빠져 지내며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는 王侯 貴戚들의 모습들을 진실한 묘사로 폭로하였다:

王侯貴人多近臣,	王侯 貴戚 대부분은 임금에 가까이서 모시는 大臣들로
朝遊北里暮南隣.	아침엔 장안북쪽 妓房에서 놀고 저녁엔 오락장 南隣.
陸賈分金將讌喜,	아들들에게 재산분배 후 돌아가며 잔치 즐긴 陸賈처럼.
陳遵投轄正留賓,	수레바퀴 우물에 던져 넣고 손님 붙잡은 陳遵처럼.
趙李經過密,	趙飛燕과 李平은 서로 매우 가까이 지냈고
蕭朱交結親.	蕭育과 朱博은 친구로 사귀어 친했네.
丹鳳朱城白日暮,	울긋불긋 장안 궁궐에는 하루해가 가고
靑牛紺幃紅塵度.	화려한 수레 푸른빛 포장은 시내를 지나네.
俠客珠彈垂楊道,	귀족 도련님 화려한 활은 버드나무 길가에 드리우고
倡婦銀鈎采桑路.	기생집 아가씨는 바구니 들고서 뽕나무 길가에서 따네.
倡家桃李自芳菲,	기생집 미모의 기녀들 향기 가득 내뿜고
京華遊俠盛輕肥.	장안의 한량들은 호사스런 옷차림이네.
延年女弟雙飛入,	가무 능한 李延年 누이와 함께 武帝 총애로 입궐하고,
羅敷使君千騎歸.	미녀 나부는 太守와 함께 수레 타고 돌아오네.

同心結縷帶, 사랑의 마음은 명주실로 띠를 잇고
連理織成衣. 남녀 애정은 나뭇가지 이어진 꽃무늬 수놓아 옷을 짓네.

이 같은 부패와 타락한 생활에 직면하여 낙빈왕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깊은 사색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은 끝내 공허한 환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莫矜一旦擅豪華, 하룻밤 부귀영화 홀로 누림을 자랑하지 말고,
自言千載長驕奢. 천년의 교만사치 길게 부릴 것이라 말하지 말라.
倏忽搏風生羽翼, 홀연히 靑雲은 곧바로 올라 높은 지위에 머물다,
須臾失浪委泥沙! 갑자기 벼슬직위 낮아져 진흙 속에 빠진다네.
黃雀徒巢柱, 실권 후엔 黃雀이 계수나무에 깃 틀어 열매 안 열리고,
靑門遂種瓜. 좌천된 후엔 靑門 밖에 東陵瓜 심는 평민이 된다네.
黃金銷鑠素絲變, 황금은 녹고 흰 명주실은 다른 색으로 변하며,
一貴一賤交情見. 영화 누리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오가는 정 드러나네.
紅顏宿昔白頭新, 이전의 붉은 얼굴 흰머리는 항상 새롭고,
脫粟布衣輕故人. 도정하지 않은 거친 쌀과 벼옷은 옛 친구를 경시하네.
故人有湮淪, 옛 친구는 빠져서 권세를 잃고
新知無意氣. 새로 사귀 친구에게는 의리가 없네.
灰死韓安國,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 韓安國을 있게 하고,
羅傷翟廷尉. 때문에 그물 쳐서 새 잡았던 翟廷尉를 슬피하네.

마지막 부분에 司馬相如·揚雄·東方朔·賈誼 등의 진고를 인용하여 懷才不遇와 壯志 實現不能의 주제로 귀결하여, 초당 문인의 깊은 感慨와 불만스런 속마음을 반영하였다:

已矣哉, 歸去來. 그만두자! 전원으로 돌아갈거나.
馬卿辭蜀多文藻, 司馬相如 蜀떠나 서울 간 것은 뛰어난 글재주 때문이고,
揚雄仕漢乏良媒. 揚雄 漢에 벼슬했어도 좋은 추천인 없었네.
三冬自矜誠足用, 3년 만에 모두 읽고 쓴다 홀로 자랑한 東方朔같았지만,
十年不調幾遭回. 10년간 승진 못한 張釋처럼 나아가기 얼마나 어려웠다.

汲黯薪逾積,	汲黯 장작 쌓는 비유처럼 뒷사람 더 높은 지위 오르고,
孫弘閣未開.	公孫弘처럼 賢才 뽑기 위한 東閣에는 문 아직 안 열렸네.
誰惜長沙傅,	누가 뜻을 품고 33세에 요절한 賈誼를 애석해 할까나,
獨負洛陽才!	오직 어려서부터 낙양의 수재였던 그를 저버렸을 뿐이네.

全篇이 98구 600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句式은 7言이 위주이고 5언과 3언을 혼용하였다. 작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그 기세가 거침이 없다. 작품은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자유분방한 필치로 長安의 지리 명승과 人文을 층층이 鋪敍하였다. 이것은 班固 <西都賦>와 張衡 <西京賦>와 같이 京都 長安을 제재로 한 東漢의 大賦와 매우 비슷하다.¹¹⁾ 후반부는 漢代 漢賦 작가의 고사를 인용하여 작가 자신의 나라에 충성할 방법이 없는 개탄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에 吳喬는 《圍爐詩話》에서 “작품의 취지는 마지막 4句에 있고, 앞부분은 鋪敍일 따름이다.(本意在末四句, 前文乃鋪敍耳)”¹²⁾라고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또한 沈德潛은 《唐詩別裁集》에서 더욱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帝京篇>을 지은 것은 당연히 수사가 화려하고 형식이 장엄하며 군주의 공덕을 敷陳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불우했기 때문에 풀어낸 것이다. 고로 시작은 성하였지만 쇠잔함으로 끝을 맺었다. 처음에는 형세의 웅대함과 궁궐의 장엄함을 서술했고, 다음에는 왕후 귀족과 游俠 倡家들의 지나친 사치스러움을 서술하였다. 「古來」 이후에는 세도의 변천을 개탄하였고, 「已矣哉」이하는 자신의 순탄치 못함을 슬퍼하였다. 이 작품은 시의 규범적인 것은 아닌데, 줄곧 이 <제경편>을 높이 평가해왔기에 이를 택하여 시창작의 한 양식으로 구비한다.(作<帝京篇>, 自應冠冕堂皇, 敷陳主德. 此因己之不遇而言, 故始盛而以衰颯終也. 首敍形勢之雄, 宮闕之壯; 次述王侯貴戚游俠倡家之奢侈無度. 至古來以下, 慨世道之變遷. 已矣哉以下, 傷一己之湮滯.

11) Stephen Owen도 낙빈왕의 <帝京篇>이나 노조린의 <長安古意>같은 都城詩는 그 전통이 東漢의 都城賦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Stephen Owen 張世厚譯, 《초당시》(대구: 중문, 2000), 136-137쪽 참조.

12) 吳喬, 《圍爐詩話》 卷二(北京: 中華書局, 1985), 51쪽.

此非詩之正聲也., 向來推重此篇, 故採之以備一體.)¹³⁾

이상에서와 같이 <제경편>에 대한 沈德潛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비평을 통하여 <제경편>은 작품의 사상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시단에 유행하던 완약한 풍조를 타파하고, 시의 형식에서 대량으로 부의 표현기법인 鋪敍를 운용하여 웅건한 새로운 시풍을 드러낸 작품임을 알 수 있겠다. 다시 <帝京篇>의 서문인 <上吏部侍郎帝京篇序>에서 “사물을 묘사하여 문장을 만듬에, 반드시 순수하고 전아한 大要에 모든 정감을 맡겨야한다(體物成章, 必寓情於小雅)”라고 한 것을 보면, <帝京篇>의 작품 창작 구상과 구조, 표현 등에서 매우 고심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때문에 胡應麟은 《詩藪》에서 “장편 시가는 낙빈왕의 <帝京篇>이 으뜸이다(長歌賓王<帝京篇>爲冠)”¹⁴⁾라고 평가하였다.

사실, 낙빈왕의 歌行詩 중에는 <帝京篇>뿐만이 아니고, 篇制가 더욱 웅장하고 내용이 매우 풍부한 <疇昔篇>이 있다. 전편이 200句 1,200여 자에 달하는 작품으로 唐詩 중에서 보기 드문 거작이다. 시인은 賦의 표현기법인 “鋪張揚厲”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경력과 불우한 처지를 서술하였다. “소년 때에는 영웅호걸들을 중요시했지만, 약관의 나이가 되어서는 예법에 얽매인 의관은 천시했다(少年重英俠, 弱歲賤衣冠)”의 강렬한 개성에서부터 “나 홀로 帝鄉인 장안에 체류하며,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낸다(淹留坐帝鄉, 無事積炎涼)”의 관직 편력, “양관의 길은 안개는 아득히 어둡고, 검각은 고산에 이어져 온갖 색을 만든다(陽關積霧萬里昏, 劍閣連山千種色)”의 從軍出征, 그리고 “십년 동안 승진 못해 여전히 빈천하고, 백 일 동안 여러 자리를 옮겨도 禍福엔 상관없다(十年不調爲貧賤, 百日屢遷隨倚伏)”의 관직생활의 불우와 실의, “齊나라 사람 추연은 아무 죄 없이 슬픔을 머금고 연나라 감옥에 갇혔고, 진의 승상 이사는 환관 趙高의 모함으로 원망을 품고 진의 형틀에 허리가 잘리고 말았다(鄒衍含悲繫燕獄, 李

13) 沈德潛, 《唐詩別裁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150쪽.

14) 胡應麟 앞의 책, 47쪽.

斯抱怨拘秦桎)”의 무고로 인한 下獄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중간에는 또한 전국 곳곳의 풍경과 경치를 접한 감회를 삽입하였다. 즉 “모두 춘강곡 노래하고, 다함께 채릉가를 부른다(共踏春江曲, 俱唱采菱歌)”·“축도는 멀리 아득하고, 민산은 험난하고 길게 뻗어 있네.(蜀路何悠悠, 岷峯阻且修)”·“대장부 곤궁하여 근심걱정 많으며, 힘들고 어려움으로 오늘을 다 보낸다(丈夫坎壈多愁疾, 契闊迢迢盡今日)” 등이다. 전편에 걸쳐서 敘事·寫景·議論·感懷가 하나로 녹아서 감개와 영탄의 기본 선율로 이어놓았다. 句式은 5언과 7언을 서로 혼용하여 융통성이 있고 다양하다. 風格상으로는 각 단락 내용이 혹은 쓸쓸하고, 혹은 비장하며, 혹은 질박하고, 혹은 화려하여, 낙빈왕의 크고 원대한 재기를 드러내었다. 실로 7언가행시의 뛰어난 걸작이다.

이상과 같이 낙빈왕의 7언가행시가 독특한 風格을 형성한 것은, 賦의 창작기법으로 詩를 짓는 “以賦爲詩”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聞一多是 《唐詩雜論·四傑》 중에:

노조린과 낙빈왕의 가행은 부의 표현기법인 鋪陳揚厲를 사용하여 팽창시킨 악부의 신곡이다. …… 그들의 노래 소리에는 개방적인 큰 리듬이 필요했기에, 그들은 賦의 표현기법으로 詩를 창작해야만 했다(盧駱的歌行, 是用鋪陳揚厲的賦法膨脹了的樂府新曲 …… 他們的歌聲需要大開大闢的節奏, 他們必需以賦爲詩)¹⁵⁾

라고 낙빈왕의 詩와 賦 두 문체의 융합 시도를 매우 명확하게 지적했다. 즉 낙빈왕은 賦창작 속에서는 이것에 상반되는 詩의 창작기법으로 賦를 짓는 “以詩爲賦”를 운용했는데, 예를 들면 그의 <蕩子從軍賦>가 그러한 전형의 대표적인 작품이다.¹⁶⁾ 후에 明의 李夢陽은 <蕩子從軍賦>를 약간 바꾸어서 <蕩子從軍行>으로 변경하였다. 본디 詩와 賦 두 종류의 문체는

15) 聞一多, 앞의 책, 24-25쪽.

16) 白承錫, 앞의 논문, 276쪽 참조.

陸機가 <文賦>에서 “詩는 情感을 토로한 것으로 언어는 정교하고 화려해야 하며, 賦는 사물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조리가 분명하고 言語가 명확해야 한다(詩緣情而綺靡, 賦體物而瀏亮)”¹⁷⁾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창작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했다. 다시 말하면 詩는 抒情 위주이고 賦는 體物 위주라는 것이 두 문체의 다른 점이고, 동일한 점은 曹丕가 《典論·論文》에서 “詩賦欲麗”라고 한 것처럼 언어 형식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賦體 창작 중에서 詩歌의 서정적인 성분을 흡수하여 일찍이 漢末 魏晉 시대에 이미 대량의 抒情小賦가 출현했고, 徐陵·庾信의 賦작품에 이르러서는 이미 歌行시와 비슷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이와 같은 문체의 융합은 駱賓王(王勃·楊炯·盧照隣 포함)의 初唐시기에 이르러, 한걸음 더 나아가 “以詩爲賦”에서 “以賦爲詩”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賦體의 표현 기법인 鋪敘를 시가 창작 속에 대량으로 운용하여 抒情과 言志의 목적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詩賦 문체의 한계를 타파한 “以詩爲賦”와 “以賦爲詩”의 창조는, 六朝 이래로 유약한 詩風과 賦風에 대한 충격으로, 唐賦와 唐詩 두 방향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에 중요한 문학사적 공헌이었다.

낙빈왕의 7언가행시의 또 다른 선명한 특색은 애정과 혼인을 제재로 삼았으면서도, 宮體詩와 다르게 虛僞적이고 변태적이며 색정적인 것을 타파한 것이다. “사랑에 속은 여인을 도와서 배반한 남자를 공격(幫痴心女子打負心漢)”¹⁸⁾한 유명한 7언가행시인 <艷情代郭氏答盧照隣>과 <代女道士王靈妃贈道士李榮> 같은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배경은 盧照隣이 四川 新都縣尉에 있을 때 郭氏라는 여인과 서로 좋아지냈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을 무렵 노조린은 곧 돌아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洛陽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노조린은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꺾이는 오지 않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아기도 가난 속에서 죽게 되자 애가 끊어질 정도로 비통해했다. 이 같은 꺾여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낙빈왕이

17) 李善注, 《文選》 17(文選研究會編, 1983), 241쪽.

18) 聞一多, 앞의 책, 14쪽.

이 시를 지어서 곽씨를 대신하여 노조린을 질책한 것이다. 후자의 배경은 장안의 道士 李榮과 女道士 王靈妃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李榮이 장안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왕령비는 그를 몹시 그리워하고 우울해했다. 이에 낙빈왕이 그녀의 어투를 모방하여 이 시를 지어 이영에게 보낸 것이다. 이 2편의 시에서 묘사한 것은 실제의 인물과 그들에 얽힌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시들의 시학적 의미는 이미 사건의 자체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사회 보편적 의미인 제재와 주제, 즉 인도주의와 정의의 입장에서 버려진 여인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진정한 동정과 관심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시인은 비유·대비 등의 표현기법으로 정감과 풍경이 서로 하나가 되어 처량한 심정을 묘사하였고, 인물의 형상도 생동적이고 사실적이다.

먼저 <艷情代郭氏答盧照隣>에서 곽씨가 버림받은 후에 복잡하고 고통스런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을 보면:

柳葉園花處處新,	成道の 버들잎 정원 꽃 곳곳에서 막 피어날 때,
洛陽桃李應芳春.	낙양의 복숭아 자두에도 마땅히 꽃피는 봄이겠지.
妾向雙流窺石鏡,	나 홀로 쓸쓸히 雙流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는데,
君住三川守玉人.	그대는 낙양에 머물며 미인과 함께 하는구료.
此時離別那堪道,	이때의 이별에 그 어찌 슬픔을 말할 수 있으리,
此日空牀對芳沼.	이날 남겨진 빈자리에 외롭게 향초 핀 연못 마주하네.
芳沼徒遊比目魚,	향긋한 연못에는 비목어만 홀로 노닐고,
幽徑還生拔心草.	조용한 산책길엔 발심초만 돋았어라.

다음은 <代女道士王靈妃贈道士李榮>에서 王靈妃의 근심을 형용한 것으로, 풍경에 정감을 실어 표현하였는데 흐름의 변화가 다양하고 풍부하다:

梅花如雪柳如絲,	겨울 매화의 꽃은 눈 같고 봄버들은 실과 같은데,
年去年來不自持.	해가 가고 음에 내 마음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네.
初言別在寒偏在,	막 이별의 말을 했는데 곧바로 차가움과 고통 가득하여
何悞春來春更思.	어떤 잘못으로 봄이 와도 봄날이 더욱 그리워지나.

聞一多是《唐詩雜論·宮體詩的自贖》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논평하였다:

노조린과 낙빈왕 두 사람의 거침없이 써내려간 대작, 이것도 역시 궁체시의 한 급변이다. 단지 편폭이 크다는 것은 별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배경에 두터운 힘이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은 이전 사람들이 이것을 기세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정감이다. 진실한 정감이 있기 때문에, 노조린과 낙빈왕의 출현으로 사람들을 100여년 마비시켰던 심령이 부활할 수 있었다. 정감이 있기에 노조린과 낙빈왕의 작품은 두보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의 명성이 멈추지 않는 江河처럼 만세에 전해질 것이다.(盧駱二人洋洋洒洒的巨篇, 這也是宮體詩的一個劇變. 僅僅篇幅大, 沒有什麼, 要緊的是背景有厚積的力量撐持着. 這力量, 前人謂之氣勢, 其實就是感情. 有真實感情, 所以盧駱的來到, 能使人們麻痺了百餘年的心靈復活. 有感情, 所以盧駱的作品, 正如杜甫所預言的, 不廢江河萬古流.)¹⁹⁾

정말로 정곡을 찌르는 평론이다. 이 2편의 장편 7언가행시의 가장 큰 문학적 성취는 題材 內容에서 새로운 면모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詩賦의 표현기법을 결합한 “體物”과 “緣情”의 운용으로, 宮體詩의 음란하고 유약한 詩風을 강력하게 뛰어넘은 점이다.

2. “獨步一時” - 5언 律詩와 絕句의 창작특색

낙빈왕은 7언가행시 뿐만 아니라 5언의 律詩·排律·絕句에서도 뛰어난 명작을 남겼다. 현존하는 낙빈왕의 시가 중에 5言律詩는 53題 70首, 5言排律은 46首, 5言絕句는 7首가 있는데, 수량적인 측면에서 7언가행시보다 많다. 그는 두 차례에 걸친 중군으로 오랫동안 변방에 머물렀기에 변방의 생활에 대한 실제적 관찰과 직접적 체험이 있었다. 따라서 그의 5언 從軍詩와 邊塞詩는 四傑중에서 수량이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²⁰⁾, 또한 담백하

19) 聞一多, 앞의 책, 15쪽.

면서도 호방한 기세와 선율의 특색을 홀로 가지고 있는데, 이는 唐代 邊塞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5언 율시 중에 <從軍行>을 보면 다음과 같다:

平生一顧重,	평생 중군함을 받들어 존중하니
意氣溢三軍.	의기는 충만하여 三軍에 넘치네.
野日分戈影,	햇빛 들판에 비치어 창끝에 반짝이고
天星合劍文.	달빛 하늘 가득 빛나서 칼 무늬 번쩍이네.
弓弦抱漢月,	활시위는 힘껏 당겨 보름달을 안은 듯,
馬族踐胡塵.	말발굽은 오랑캐 땅의 자욱한 먼지 밟아버린다네.
不求生入塞,	살아서 다시 변방에 들어오는 것 바라지 않고
惟當死報君.	오직 죽음으로써 임금에게 보답하리라.

전편에 걸쳐 음조가 우렁차고 기세가 호방하며 뛰어난 對偶의 詩句로 힘차게 중군하며 죽음으로써 나라에 충성하려는 壯士의 형상을 만들어 내었다. 이와 같은 낙빈왕의 邊塞詩는 文一다가 “從台閣移至江山與塞漠”이라고 말한 것처럼, 당시 궁정을 중심으로 한 應制詩가 문단의 주류를 이룰 때에, 변방 중군의 제재를 각종 시가 형식의 창작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재는 시가의 새로운 영역과 면모를 개척하여 당시의 문단에 새로운 기상과 활력을 불어넣어 齊梁 詩風에 대한 변혁을 반영하였고, 그 영향 또한 심원하여 盛唐시기 悲壯慷慨한 邊塞詩派의 기초를 닦았다.

낙빈왕의 絕句體의 시가를 살펴보면, 5언절구가 모두 7首가 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於易水送人>은 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傳誦되던 것이다.

20) 王勃은 現存詩 94首 중에 邊塞가 제재인 것이 2首가 있고, 楊炯은 現存詩 33首 중에 邊塞가 제재인 것이 7首가 있으며, 盧照隣은 現存시 94수 중에 변새가 제재인 것이 15首인데, 駱賓王은 現存시 133수 중에서 변새가 제재인 것이 17首가 있다.

此地別燕丹, 荊軻가 秦으로 갈 때 이곳 易水에서 燕太子 丹과 헤어짐에
壯髮上衝冠. 의기 충만한 장사의 머리털은 노여움에 하늘을 찌를 듯했네.
昔時人已沒, 옛날의 영웅호걸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
今日水猶寒. 그들의 영원한 충천사기는 흐르는 강물 여전히 차게 하네.

燕의 태자 丹이 荊軻를 보내면서 易水에서 비분강개하여 읊은 悲歌의典故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회를 서술한 것으로 송별의 격정을 표현하였다. 특히 마지막 두 구절의 對句는 간단한 어휘를 이용하여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었다. 그밖에 낙빈왕이 揚州 반란에 참가했을 때에 창작한 <在軍登城樓>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작품이다.

城上風威冷, 양주의 성벽 위 찬바람 기세등등하고,
江中水氣寒. 강가의 가을 물 안개는 차디차네.
戎衣何日定, 묻노니 언제야 승리할까 이 전쟁에서.
歌舞入長安. 노래하고 춤추며 장안으로 들어가리.

찬바람 부는 가을날 쓸렁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낙관적인 태도를 표현하였다.

낙빈왕은 또한 가장 일찍 5言排律을 창작한 시인 중의 한 사람인데, 胡應麟은 《詩藪》에서 ‘獨步一時’라고 높이 평가했다:

沈佺期和 宋之問 이전에는 배율이 매우 적었는데, 오직 낙빈왕 시 작품만 홀로 많았다. 뛰어난 것으로 ‘변방 庭州에서 아득히 돌아갈 길을 바라본다(二庭歸望斷)’, ‘떠도는 나그네 신세로 함께 변방에 종군하다(蓬轉俱行役)’, ‘그대는 彭山 구절판 밖으로 떠나다(彭山折坂外)’, ‘蜀地開天府’ 등이 있는데, 모두 화려하고 웅장하여 한 시기에 견줄만한 작품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沈宋前, 排律殊寡, 唯駱賓王篇什獨盛. 佳者如‘二庭歸望斷’, ‘蓬轉俱行役’, ‘彭山折坂外’, ‘蜀地開天府’. 皆瀏麗雄渾, 獨步一時.)²¹⁾

21) 胡應麟, 앞의 책, 75쪽. 胡應麟이 열거한 낙빈왕의 詩句 중에 “蜀地開天府”는 낙빈왕의 문집에 보이지 않음.

이상과 같은 胡應麟의 높은 평가는 근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夕次蒲類津>를 들 수 있다:

二庭歸望斷,	변방에 있어 고향 가는 길 아득하고,
萬里客心愁.	아득한 만리 길 나그네의 근심만 가득하네.
山路猶南屬,	蒲類의 산길은 남쪽으로 이어져있고
河源自北流.	蒲類의 물길은 북쪽으로 내달리네.
晚風連朔氣,	저녁바람은 삭막한 북방의 한기 몰아오고,
新月照邊秋.	떠오른 달은 차가운 변방의 가을 비추네.
竈火通軍壁,	행군의 길 위에 밥 짓는 불빛이 야영지로 이어지고,
烽煙上戍樓.	봉화의 연기는 수루 위로 솟아오르네.
龍庭但苦戰,	이역에서 힘들게 분전한다면,
燕頰會封侯.	班超처럼 공을 세워 벼슬길에 오를 수 있으리.
莫作蘭山下,	李陵이 흉노의 蘭于山아래서 투항하여
空令漢國羞.	헛되이 漢나라 굴욕 당한 것처럼 하지 않으리.

이 시는 6韻 12句의 5言排律이고, 이보다 더 장편인 것으로 49韻 98句의 <夏日遊德州贈高四>가 있다. 漢魏六朝의 5言古詩로부터 발전한 5언배율은 杜甫 이후로 더욱 번성하여 성숙해졌고, 中唐 白居易의 시에 이르러서는 100韻에 달하여 체제가 웅장하면서도 짜임 또한 조화롭게 배치되어 운율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이러한 5언배율의 변천에서 근원을 찾아보면 그 시작의 공로는 마땅히 낙빈왕에게 돌려야 한다. 따라서 胡應麟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王勃, 楊炯, 盧照隣, 駱賓王은 詩語에 뛰어나고, 沈佺期, 宋之問, 陳子昂, 杜審言은 詩格에 뛰어나고, 高適, 岑參, 王維, 孟浩然是 詩韻에 뛰어나다. 시어가 뛰어난 뒤에 시격이 갖춰지고, 시격이 뛰어난 뒤에야 시운이 갖춰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王·楊·盧·駱以詞勝, 沈·宋·陳(子昂)·杜(審言), 以格勝, 高·岑·王·孟以韻勝. 詞勝而後有格, 格勝而後有韻, 自然之理也.)²²⁾

22) 胡應麟, 앞의 책, 189쪽.

그밖에 낙빈왕은 그의 시가창작에서 어떤 詩體나 구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 5언이나 7언의 구식을 혼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從軍中行路難>에서 “將軍擁旌宣廟略, 戰士橫戈靜夷落(장군은 통솔 깃발을 들어 조정의 전략을 선포하고, 전사는 창을 휘둘러 적지 평정을 맹세하네)”와 같은 7언의 구식과 “征役無期返, 他鄉歲月晚(정벌 전쟁 아득하니 돌아갈 날 기약 없고, 타향에 머문 세월 오래되었네)”와 같이 5언의 구식을 교체 사용하여 정벌 전쟁의 어려움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쓸쓸하고 삭막한 현지풍경과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다. 또한 낙빈왕의 <軍中行路難同辛常伯作>도 악부 잡곡가사를 차용하여 자신의 변방 중군경험과 느낌을 표현했는데, 묘사 형식에서 3언과 7언 또는 10언의 구식을 교체 사용하고 있다.

3. “托物寓意, 借物抒情” - 시가 표현의 현저한 특색

낙빈왕의 시가 창작 중에 현저한 다른 특색은 “托物寓意”, 즉 사물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기법을 常用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詠物詩는 四傑 중에서도 가장 수량이 많고 또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낙빈왕의 <浮查>로 예를 들어보면:

昔負千尋質,	오랜 천년의 자질을 잃어지고
高臨九仞峰.	높은 산봉우리를 굽어보네.
貞心凌晚桂,	곧은 정절은 가을 계수나무를 능가하고,
勁節掩寒松.	굳은 절개는 겨울 소나무를 뒤덮네.
忽值風飄折,	홀연히 광풍에 꺾이어,
坐爲波浪衝.	성난 파도위에 누워 부딪치네.
推殘空有恨,	쓰러져 부러져 부질없이 미련만 남고,
擁腫遂無庸.	나무줄기 웅이 박혀 재목이 되지 못하네.
渤海三千里,	큰 바다 멀리 삼천리나 되고,
泥沙幾萬重.	진흙은 쌓여서 몇 만 겹이나 되네.
似舟飄不定,	바다에 떠 있는 쪽배처럼 요동치며 흔들거리고,

如梗泛何從. 부평초처럼 두둥실 떠서 어디로 가는가?
 仙客終難託, 仙客은 끝내 의탁하기 어렵고,
 良工豈易逢. 良工을 어찌 쉽게 만날 수 있겠는가.
 徒懷萬乘器, 부질없이 萬乘을 부릴 재주를 품고서
 誰爲一先容! 누가 먼저 한번 나를 위해 조각해줄 수 있을까!

과도 속에 떠있는 큰 나무 한 그루의 처지를 빌어서 자신의 관직생활에 대한 失意의 고통을 기탁하였다. 이 밖에도 <詠水>·<詠雁>·<詠雪>·<詠塵灰>·<玩初月>·<詠雲酒> 등의 작품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사람들에게 칭송되는 것으로 <在獄詠蟬>이 있다:

西陸蟬聲唱,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가을 매미 소리가
 南冠客思侵. 간혀있는 우울한 죄수의 흥금을 울리네.
 那堪玄鬢影, 건딜 수 없는 가을매미 슬픈 소리 끊임없이 이어져,
 來對白頭吟. 백발인 이 사람에게 백두음을 구슬프게 노래하는구나.
 露重飛難進, 짙은 찬이슬은 매미 날개를 적서 날아가기 어렵게 했고,
 風多響易沈. 서풍이 휘몰아쳐 매미소리를 놀리버렸네.
 無人信高潔, 매미야, 너의 고결함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誰爲表予心. 누구에게 자신의 순수한 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리.

낙빈왕이 장안의 侍御史로 있을 때 상소하여 조정에 대한 불만을 말했는데,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誣陷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어 이 시를 짓게 된 것이다. 시의 앞부분에 序가 있는데,

每至夕照低陰, 매일 저녁 석양이 낮게 그림자 드리울 때에,
 秋蟬疏引, 감옥 밖의 가을매미 소리 가끔씩 들려
 發聲幽息. 깊은 탄식 나오게 하네.
 有折嘗聞. 이전에 들었던 매미소리보다 더 애절하게 들리는 것 같네.
 豈人心異於曩時, 사람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인가,
 將蟲聲悲乎前聽. 아니면 매미소리 과거보다 더 구슬프기 때문인가.

라고 한 것을 보면, 가을 매미의 구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작가 자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알 수 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사람의 심정으로, 가을 매미의 험난한 처지에 감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죄수인 자신을 은유했고, 또한 높은 가지에 살면서 바람과 이슬을 마시는 매미로써 자신의 품격이 고결함을 상징했으며, 아울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자신을 시 전편에 나타내어 작품의 분위기가 침울하면서도 완곡하다. 형식적으로도 對句가 뛰어나고 음률이 조화로워 비교적 성숙된 5언 詠物詩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낙빈왕의 이 작품을 唐詩 중에서 매미를 읊은 뛰어난 3편중의 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清代 施補華는 《峴傭說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경 중에 비홍의 수사법이 많은데, 당대의 시인이 또한 그 뜻을 얻었다. 동일하게 매미를 읊은 것으로 우세남의 시 중에 ‘높은 곳에 앉아서 내는 소리는 저절로 멀리 가는 것, 결코 가을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네’의 구절이 있는데, 이는 고상한 사람의 말이며, 낙빈왕의 시 중에 ‘질은 찬 서리는 매미의 날개를 적셔 날기 어렵고, 맹렬한 바람은 매미 소리를 눌러 울리고 싶어도 쉽게 가라앉는다’의 구절이 있는데, 이는 재난을 당한 사람의 말이며, 이상은의 시 중에 ‘그리 높은 곳에 살면서 바람과 이슬은 배부르기 어려운데, 쓸데없이 원망의 마음으로 처량한 소리만 네네’의 구절이 있는데, 이는 근심이 있는 사람의 말이다. 매미를 통한 동일한 비홍이라도 이처럼 다르다.(三百篇比興爲多, 唐人猶得其意. 同一詠蟬, 虞世南‘居高聲自遠, 端不籍秋風’, 是清華人語; 駱賓王‘露重飛難進, 風多響易沉’, 是患難人語; 李商隱‘本以高難飽, 徒勞恨費聲’, 是牢騷人語. 比興不同如此.)²³⁾

왕발·양형·노조린처럼 낙빈왕도 우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우정을 그린 것으로는 “蜀道 아득히 멀어 석별의 눈물 흐르고, 축도 험난하여 혼백조차도 깜짝 놀라네(萬行送別淚, 九折切驚魂)”(<送費六還蜀>) “이별 후 그리움의 노래, 처연히 거

23) 《中國歷代詠物詩辭典》(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2), 531쪽.

문고 바람 소리로 들어가네(別後相思曲, 淒斷入琴風)”(<在兗州餞宋五之間>)과 같은 것이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한 것으로는 “이별의 노래 부질없이 혼자 불러도, 나그네의 혼백을 누가 불러 줄거나(勞歌徒自奏, 客魂誰爲招)”(<冬日野望>) “나 홀로 얼굴 문고 통곡하며 막다른 힘든 길의 눈물 흘리고, 어쩔 수 없이 험난한 세상을 노래한 행로난만 길게 노래하네(獨掩窮途淚, 長歌行路難)”(<早發諸暨>)와 같이 정감의 표출이 진실하고 간절하다. 풍경을 묘사한 시는 관찰이 세밀하고 묘사가 꺾진하여 그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읽는 이로 하여금 그 풍경 속에 직접 서 있는 듯하게 하였다. 봄의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어지러이 떨어지는 꽃잎은 바람에 불려 가고, 지저귀는 피꼬리는 나무 가득 날아오네(落蕊翻風去, 流鶯滿樹來)”(<春晚從李長史遊開道林故山>) 등과 같은 것이 있고, 여름의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여름의 물가에는 연꽃 향기 사방에 가득하고, 가을의 들판에는 곡식의 기운 곳곳에 맑아라(浦夏荷香滿, 田秋麥氣清)”(<夏日遊目聊作>), 가을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가을 매미소리 가을 벚길 속에서 들려 오고, 기러기는 저녁 갈대 꽃 속에서 날아 흩어진다(蟬鳴稻葉秋, 雁起蘆花晚)”(<在江南贈宋五之間>), 겨울의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푸른 대나무 숲 속에서는 부드러운 겨울 죽순이 자라나고, 붉은 미인초 무리 속에서는 산뜻한 동짓달의 꽃이 피네(綠竹寒天筍, 紅蕉臘月花)”(<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 등과 같이 그 예가 매우 많다. 이는 낙빈왕 시가의 題材와 風格 그리고 필치의 다양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실로 그는 초당시단에서 다양한 시가 창작에 재주가 있었던 작가였다.

Ⅲ. 낙빈왕의 文章

“초당사결”은 줄곧 浮艷한 齊梁의 문풍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낙빈왕은 더욱이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여, “그것으로 나라

를 다스릴 수 있고, 인륜을 돈독히 할 수 있다(可以用之邦國, 厚此人倫)²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낙빈왕의 문장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제약 때문에 현재에 볼 수 있는 것은 몇 십 편의 書·序·表·啓 등과 같은 것뿐으로 모두 四六駢儷의 문장이다. 즉 洪邁가 “그들은 변려문의 형식으로 記와 書, 碑銘의 문장을 지었는데, 이것은 당시 유행한 문체와 격식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用駢儷作記序碑碣, 蓋一時體格如此)²⁵⁾”라고 지적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그의 변려체 문장은 비록 對偶에 치중하고 수식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기세가 분방 유창하고 사용한 語詞도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典故의 사용도 적절하여 생소하지 않다. 또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쏟아 부은 낙빈왕의 문장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화려한 수사에다가 생소한 전고를 많이 사용하여 생기 없는 六朝시대의 駢儷文과는 함께 거론할 수 없는 것이다.

1. 천하를 뒤흔든 토벌 檄文 - <代李敬業傳檄天下文>

낙빈왕의 <代李敬業傳檄天下文>은 바로 이런 새로운 형태 변려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劉勰의 《文心雕龍》 중에 檄文의 창작에 대하여 “반드시 事情을 명백하게 말해야하고 是非를 객관적으로 판별해야 하며, 기세가 맹렬해야하고 辭意가 정확해야 한다(必事昭而理辨, 氣盛而辭斷)²⁶⁾”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별해야하고 필치의 기세는 세차게 맹렬해야하며 사용된 語詞는 정확하여 과단성이 있어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격문을 쓰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낙빈왕의 <代李敬業傳檄天下文>은 바로 사소(事昭)·이변(理辨)·기성(氣盛)·사단(辭斷)인 檄文의 典範이다. 전체 문장 단락의 구성은 그 짜임새가 빈틈이 없다. 첫 단락에서는 武氏의 큰 죄는 천지에 용납되지 않음을 드러내었고, 둘째 단락에서는 徐敬

24) 낙빈왕 자신의 <和道士閨情詩啓>에서 <閨情詩>의 教化가치를 말한 부분이다.

25) 洪邁, 《容齋隨筆·四筆5》(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671쪽.

26) 劉勰, 《文心雕龍》(台北: 里仁書局, 1984年), 394쪽.

業이 일으킨 군사의 기세가 혁혁하여 그 날카로움은 당할 수 없음을 표현 하였으며, 마지막 단락에서는 武氏 조정의 인물들에 대한 진퇴와 이해관계를 드러내어 그들의 사기를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전체 문장 단락의層次가 분명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公等	여러분들 중에,
或家傳漢爵,	어떤 이는 漢 封王처럼 황실의 封爵을 세습하고,
或地協周親.	어떤 이는 周의 종친처럼 황실의 宗室이며,
或膺重寄於爪牙,	어떤 이는 將軍으로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기도 했고,
或受顯命於宣室.	어떤 이는 大臣으로 중요한 유지를 받들기도 했습니다.
言猶在耳,	선왕의 말씀이 아직 귀에서 울리는데
忠豈忘心.	여러분의 충심을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一抔之土未乾,	한줌의 무덤 흙이 아직 마르기 전에
六尺之孤安在.	어리고 외로운 中宗은 어디에 갇혀 있으실지?
儻能轉禍爲福,	만일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送往事居,	돌아가신 先王을 안장하고 지금의 中宗을 잘 도와서,
共立勤王之勳,	함께 왕을 돕는 공훈을 세우고
無廢大君之命,	선왕인 고종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凡諸爵賞,	토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작위를 내릴 것이니
同指山河.	태산과 황하에 맹세하는 것처럼 잊히지 않을 것이다.
若其眷戀窮城,	만일 고립무원의 성을 버리지 않고
徘徊歧路,	기로에서 배회하면
坐昧先幾之兆,	좋은 기회를 잃을 것으로
必貽後至之誅.	반드시 가혹한 징벌을 만날 것이다.
請看今日之域中,	오늘의 이 나라 안을 잘 살펴,
竟是誰家之天下.	도대체 누구의 천하일까를 생각해 보길 원한다.
移檄諸郡,	이렇게 각 군현에 격문을 돌리니
咸使知聞.	전부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

마무리 부분에 “請看今日之域中，竟是誰家之天下”라고 한 것은 더더욱 기세가 웅만하고 위엄이 있는 대의명분을 드러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문사의 수식이 화려하고 완
 약한 이전 시대 변문의 文風을 초월하여 새 시대 변문의 風格을 창조했다
 고 말할 수 있다. 武則天조차도 자신을 성토했는 이 檄文 중에 “一抔之土
 未乾, 六尺之孤安在”의 구절을 보고서 크게 놀라 탄식하면서 “재상은 어찌
 이런 사람을 놓치셨소!(宰相安得失此人!)”(《新唐書·駱賓王傳》)라며 안색
 을 바꿀 정도였다고 한다.

구식의 구조는 四六駢儷를 주체로 해서 四六四六, 혹은 四四六六으로
 對를 이루어 對仗이 가지런하다. 또한 동시에 5言과 7言句도 있고, 詞組나
 短句를 사용하는 등 탄력적 변화가 있는 다양한 구절들을 활용했으며, 전
 체적으로 平仄이 조화를 이루어 리듬감 있는 駢文의 음악성을 잘 드러내
 고 있다. “大檄千秋氣浩然(큰 격문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기색이 여전
 히 늠름하다)”²⁷⁾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王勃의 <滕
 王閣序>와 함께 初唐 뿐만이 아니고 唐代 문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새
 로운 형태의 駢文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동적인 鄉親의 情 - <與博昌父老書> <與親情書>

낙빈왕의 駢文에 <代李敬業傳檄天下文>와 같이 氣勢가 웅장하고 화려
 한 수식으로 농후한 정감을 드러낸 작품이외에도, 또한 부드러운 격조로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彫琢이 없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그의 만년에 臨海
 丞으로 있을 때 쓴 <與博昌父老書>이다. 낙빈왕의 부친은 일찍이 博昌 현
 령을 역임했었는데, 그는 어려서 부친을 따라가서 생활하며 스승을 찾아
 배우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낙빈왕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
 는 곳이었다. 그곳을 떠난 지 15년 뒤에 그는 감회에 젖어서 이 한 통의
 소박하고 정감이 넘치는 서신을 쓴 것이다. 이 서신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27) 江源의 詩는 《駱臨海集箋注》附錄에 보임.

自解携襟袖,	내가 친구들과 이별한지
一十五年,	벌써 15년인데,
交臂存亡,	질친한 친구들이 혹은 죽고 혹은 살아서
略無半在.	대략 살아있는 친구들 반이 안 됩니다.
張學士溘從朝露,	교유하던 張學士 갑자기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辟閭公倏掩夜臺.	辟閭公도 갑자기 무덤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故吏門人,	부친이 계실 때의 옛 관리와 문인들,
多遊蒿里,	대부분 돌아가서 혼백이 머무는 蒿里를 거닐고,
耆年宿德,	나이 많고 덕망 높았던 분들도
但見松丘.	단지 묘지에서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嗚呼!	아!
泉壤殊途,	정말로 삶과 죽음이 다른 길로
幽明永隔.	유명이 영영 달라졌습니다.
人理危促,	인생의 어려움과 생명의 짧음은
天道奚言.	이미 하늘의 정해진 것으로 무엇을 말할 것이 있으랴?
感今懷舊,	지난날의 그리움에 쓸쓸한 이내 마음
不覺涕之無從也.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끝이 없도다.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스승과 친구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허전한 함을 담담한 필치로 질박하게 말하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구절마다 생소한 典故도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의 진실함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었다. 여기에서 화려한 수식으로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던 六朝시기 駢文의 병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張仁靑의 《中國駢文發展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로 뛰어난 한 편의 서정문이다. …… 본 작품의 풍격은 제량시기의 그것이지만, 제량시기의 형식적인 조탁을 없애고 점차로 자연스러워졌다. 이것은 두보가 말한 ‘不廢江河萬古流’의 작품이다. 초당의 문체는 이것으로 살필 수 있다. 蔣心餘가 평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낙빈왕의 문집 중에 매우 담원한 작품으로, 문장은 번잡함을 위주로 하지 않았다.(雖爲書翰體裁, 實則一篇絕妙之抒情文也. …… 本篇風

格猶是齊梁, 而去其彫琢, 漸進自然, 此所謂‘不廢江河萬古流’者也. 初唐文體, 卽此可窺. 蔣心餘評曰‘是駱丞集中極澹遠之作, 文固不以繁爲貴也’²⁸⁾

이밖에 <與親情書>도 고향의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묘사한 것이다.

風壤一殊,	일단 집 떠나 풍토가 다르니
山河萬里.	이미 산하는 만 리 밖입니다.
或平生未展,	혹은 평생 펼치지 못하기도 하고,
或暌索累年.	혹은 헤어져 외로이 몇 해를 계속 보내기도 합니다.
存沒寂寥,	존망이 적막하고
吉凶阻絕.	길흉은 단절입니다.
無由聚洩,	서로 만나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
每積淒涼.	울적한 마음 가슴에 쌓여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近緣之官,	직접 만든 이유로 관직에 나아가서
佐任海曲.	해변가 臨海에 임무를 맡았는데,
便還故里,	임지로 가는 길에 고향에 돌아가서
冀敘宗盟.	중친 동성의 정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徒有所懷,	나는 비록 이 같은 염원이 있었지만,
未畢斯願.	그러나 줄곧 아직 이런 바람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不意遠勞折簡,	생각지도 않게 친구의 서신을 받으니
辱逮湮淪.	나락으로 떨어진 나를 이렇게 헤아려줌에 마음 아픕니다.
雖未敘言,	비록 아직 회포를 풀지는 못했지만
暫如披面.	그러나 마음열고 마주 앉은 것 같습니다.
晚夏炎鬱,	여름의 날씨가 무더우니
並想履宜.	일상생활 편안하기를 빕니다.

陳熙晋이 “遠勞折簡’ 등과 같은 몇 구절로 보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친구가 먼저 보낸 편지를 보고 도중에 친구에 보낸 글이다(所云遠勞折簡數句, 乃未還故里以前, 親舊先已貽書, 作於途次, 以答親舊之辭)”²⁹⁾

28) 張仁青, 《中國駢文發展史》(台北: 台灣中華書局, 1979), 459쪽.

29) 陳熙晋, 앞의 책, 294쪽.

라고 해설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을 낙빈왕이 臨海丞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쓴 서찰이다. 비록 서찰이라는 형식의 문장이지만, 張仁靑도 지적한 것처럼 抒情에 뛰어나 한 편의 抒情詩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또한 駢文의 句式은 四六言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六朝시대에 이미 정형화 된 것으로, 낙빈왕의 다른 駢文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與博昌父老書>·<與親情書> 두 편은 매 구절 거의 4言 위주인 것이 특이하다. 이 두 작품은 “以詩爲駢文”, 즉 詩의 언어로 여의지 못한 인생의 처량한 심정을 간결 명쾌하게 표현한 문장이다. Stephen Owen은 《초당시》에서:

노조린과 왕발처럼 낙빈왕 또한 변문 수사의 대가였지만 노조린과 왕발이 각종 시체와 변문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던 데 반해 낙빈왕은 시의 구조와 어사를 변문에 보다 접근시켰다.³⁰⁾

라고 하여 낙빈왕의 시가 창작에 변문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與博昌父老書>·<與親情書>의 분석을 통하여 낙빈왕은 변문 창작에서도 詩의 내용과 표현기법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낙빈왕은 두 문체의 영역을 넘나드는 문체 융합의 시도를 통하여 자신만의 특이한 풍격을 형성하였다.

3. 새로운 관직을 위한 干謁 - 書啓文

낙빈왕의 《駱臨海集箋注》 권7,8에 表·啓·書文이 모두 19편이 실려 있는데, 문집의 문장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량이다. 孫梅는 《四六叢話》에서:

만일 표현할 내용과 공손한 태도의 진지한 마음이 表를 사용해야할 정

30) Stephen Owen, 앞의 책, 178쪽.

도가 아니거나, 면밀하고 신중한 의도가 일반적인 서신(書)으로 표현하기 부족한 것에는 즉 啓라는 이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若乃敬謹之忱視表爲不足, 明慎之旨俾書爲有餘, 則啓是也)³¹⁾

라는 설명을 보면 表·啓·書는 성질이 비슷한 서신의 일종인 문장임을 알 수 있겠다. 사실 “啓”는 魏晉시기부터 君王에게 올리는 상소에 “啓”의 명칭을 쓰기 시작하여 일반적인 서신과는 좀 달랐는데, 唐宋시기에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올리는 모든 서신에 전부 “啓”의 명칭을 사용했다.³²⁾ 明 徐師曾 《文體明辨序說》에서:

書라는 것은 ‘펼치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펼치고 그것을 진술하는 서신이다. …… 啓는 ‘열다’라는 의미로, 그 뜻을 개진한다는 것이다. 혹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데,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진술한다는 것이다.(書者, 舒也, 舒布其言而陳之簡牘也. …… 啓, 開也, 開陳其意也; 一云跪也, 跪而陳之也.)³³⁾

라고 하여 啓文 자체에 존중의 태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낙빈왕의 書 啓文은 비록 대부분 신분이 높은 사람 만나기를 간청하거나 추천 받기 위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풍부한 史料의 가치 속에서 적극적인 사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裴行儉이 자신을 임용한 것을 사절하기 위하여 지은 <上吏部裴侍郎書>에서, 모친이 연로하여 앓은 병환 때문에 부름에 응하기 어려움을 서술할 때에, 완곡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깊은 작가 자신의 깊은 정감을 드러냈다.

所以逡巡於成命, 書記로 임용해주신 결정에 머뭇거리며
躊躇於從事者, 그 일을 받아들임에 주저하는 이유는,

31) 孫梅, 《四六叢話》(台北: 世界書局, 1970), 251쪽.

32) 褚斌傑, 《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442-443쪽 참조.

33) 徐師曾, 《文體明辨序說》(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128쪽.

徒以夙遭不造, 일찍이 제가 불행한 일을 당해서
 幼丁閔凶. 어렸을 때 걱정스런 凶喪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老母在堂, 늙으신 모친이 집에 계신데,
 常嬰羸恙. 늘 쇠약하시고 병치레가 잦습니다.
 糲糗無甘旨之膳, 현미와 乾糧만으로, 모친을 대접할 맛있는 음식은 없고
 松檟闕遷厝之資. 나무 우거진 묘지만으로, 부친을 이장할 비용 없습니다.
 撫躬存亡, 내 스스로 반성해보면, 살아도 죽은 듯
 何心天地. 천지에 어떤 마음인지 한없이 슬픕니다.
 故寢食夢想,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해도
 噬指之戀徒深; 어머니의 사랑만 깊으며,
 歲時蒸嘗, 봄과 가을의 제사에
 崩心之痛罔極.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만이 망극합니다.
 若僕者, 저와 같은 사람은
 固名教中一罪人耳, 인륜의 명분 밝히는 가르침 중의 한 죄인일 따름으로,
 何面目以奉三軍之事乎. 무슨 면목으로 군중 書記 직무를 맡겠습니까?

낙빈왕의 <上吏部裴侍郎書>과 그 체재가 유사한 작품으로 낙빈왕 이전에 유명한 晉代 李密의 <陳情表>가 있다. 이 작품에 감동된 晉 武帝가 이미 내려진 정벌 소집명령을 거둬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한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今臣亡國之賤俘, 지금 저는 망국의 천한 포로로서,
 至微至陋, 지극히 미천하고 지극히 비루한데도
 過蒙拔擢, 과분하게 발탁되니,
 豈敢盤桓, 어찌 감히 주저하며
 有所希冀.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但以劉日薄西山, 단지 조모 유씨가 마치 해가 서산에 지려는 것처럼
 氣息奄奄, 숨이 끊어지려고 하여
 人命危淺,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朝不慮夕. 아침에 저녁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臣無祖母, 저는 조모가 없었더라면

無以至今日, 오늘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며,
 祖母無臣, 조모께서는 제가 없으면
 無以終餘年, 여생을 마칠 수 없을 터이니,
 母孫二人, 조모와 손자 두 사람이
 更相爲命, 서로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是以區區不能廢遠. 바로 이 때문에 봉양하지 않고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

낙빈왕의 <上吏部裴侍郎書>과 李密의 <陳情表> 2편이 사람에게 크게 감동을 주는 것은 2편 모두 작가의 깊고 진지한 정감의 바탕위에 완곡하고 수식이 없는 소박함이 하나가 된 문장이기 때문이고, 또한 평이하게 한 자 한 자가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듯 감동을 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밖에 낙빈왕의 書啓文 중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문장의 특이한 전체 구조이다. 서계문의 내용은 고관의 추천을 희망한 것으로 전체 문장의 구조 형식에 새로운 3단계 논법의 형식을 시도했다. 처음 시작은 전체 문장의 서두로써 재능을 알아보고 천거해줌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하고, 다음은 추천인에 대한 존경과 찬양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곤경을 표현하여 추천 받아 관직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예를 들어 <上李少常伯啓>를 보면, 첫 시작부분에 求仕와 不遇의 상황을 논술하기를:

是汗隆迭襲, 이것으로 관직 기회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성쇠는
 榮頌相循. 마치 세상에서 성쇠, 무성함과 초취함이 있는 만물과 같아,
 得氣者繁滋, 세상의 眞氣를 얻은 자는 번성하여 증가하고,
 失時者零落. 기회를 잃은 자는 시들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李敬玄의 직위와 家事를 歌頌하고, 또한 그의 政績과 권위를 가송하기를:

加以分庭讓士 게다가 군계서는 서로 대등하게 선비들에게 양보하고

虛坐禮賢 자리를 비워 현자를 예우합니다.
 片善必甄 작은 장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선발하고
 揖虞翻於東箭 虞翻에게 동남쪽 멋진 활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습니다.
 一言可紀 말 한마디면 준칙이 될 수 있고,
 許顧榮以南金 顧榮를 남쪽 인재로 천거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蟠木朽株 저 자신은 넝쿨나무의 썩은 밑동으로
 散樗賤質 쓸모없는 천박한 재목입니다.
 牆面難用 벽면을 마주하고 있듯 아는 것이 없어 등용되기 어려워,
 灰心易寒 식어버린 재처럼 용기를 잃은 마음 차갑기만 합니다.
 退無毛薛之交 물러나자니 모공과 설공 같은 사귀를 얻을 수 없고,
 進乏金張之援 나아가자니 金日磾와 張安世 같은 그런 발탁이 없습니다.
 塊然獨居 쓸쓸히 홀로 거주하며
 十載於茲矣 이미 이곳에서 1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李敬玄에게 다음과 같이 갈망하였다.

所覬曲逮恩光 제가 바라건대 부분적으로 천자의 은총을 얻을 수 있고
 資餘潤於東里 도움으로 東里에서 넉넉한 운택함을 얻고 싶습니다.
 襲承導引 바라건대 선배들의 先導를 이어가서
 托輕夢於南柯 작은 침당굴이 남쪽 樛木에 휘감겨 의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관직을 위해서 추천을 간구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다른 계문으로는 <上司列太常伯啓>·<上兗州刺史啓>·<上兗州崔長史啓>·<上兗州張司馬啓>·<上齊州張司馬啓>·<上廉察使啓>·<上瑕丘偉明府啓>·<上郭贊府啓>·<上梁明府啓> 등등이 있다. 모두 유사한 구조로, 조리 있고 層次가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書啓文의 창작구조는 낙빈왕 이후 관직의 추천을 위해 干調하는 사회적인 풍조와 맞물려 많은 求仕者들의

서계문 창작에 좋은 典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李白의 <與韓荊州書>·<上安州裴長史書>, 杜甫의 <進三大禮賦表>·<進封西岳賦表> 등과 같은 書啓文들을 살펴보면 낙빈왕 書啓文의 구조 형식과 매우 흡사한데, 이것을 통하여 書啓文 창작 형식의 흐름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또한 낙빈왕의 문장 중에서, 유람하며 풍경을 그린 序文도 濃淡이 알맞게 배치된 수채화처럼 묘사가 淸麗하다. <冒雨尋菊序>을 보면:

砌花舒菊,	섬들 밑에 국화는 활짝 피었는데,
還同載酒之園.	흡사 도연명 술에 취하던 때의 정원 같다.
岸葉低松,	강가에 솔가지 늘어져 잎이 낮게 드리워져,
直枕維舟之浦.	직접 배 닿는 포구에 붙어 있다.
參差遠岫,	멀리 산들이 죽 이어져 있고,
斷雲將野鶴俱飛.	조각구름은 들녘 학을 데리고 함께 날아간다.
滴瀝空庭,	텅 빈 정원에 빗방울 떨어지고,
竹響共雨聲相亂.	대나무 울림은 빗소리와 어울려 서로 뒤섞여 버린다.

비록 四六駢文의 구식을 사용했지만, 비 내리는 가을날 친구와 함께 국화를 감상하는 정경이 動的·靜的인 모습과 서로 잘 어울리고, 또한 聲色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王勃의 <滕王閣序>의 “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長天一色(저무는 저녁놀과 외로운 들오리 함께 날고, 가을 물가와 끝없는 하늘은 한 빛을 이루었다)”와 필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揚州看竟渡序>를 보면:

(女便)娟舞袖,	앞 다투는 渡船 위에, 무희들의 훨훨 휘감기는 옷소매자락
向淥水以頻低.	舞曲 박자 중에 빈번하게 밀으며 드리워지고,
飄颻歌聲,	울려 흩어지는 노래 소리는
聽淸風而更遠.	淸風에 실려서 더욱 멀리 멀리 전해진다.

무녀들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몇 구절 속에서 절묘하

게 묘사되어 마치 눈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唐代 揚州의 독특한 풍경을 드러내었다.

IV. 맺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빈왕의 詩文을 체제 내용과 체제 형식의 상호 결합 방법으로 분석 토론하고, 그 문학 창작의 특색과 성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그 결론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四傑”의 중요한 일원인 낙빈왕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출신으로써 정치적으로 의탁할 곳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재기가 넘치고 성격이 호방했기에 일생의 모든 것을 문학 작품을 통하여 표출해 내었다. 즉 그의 詩文은 자신이 겪은 인생경험과 정치적 부침에 대한 묘사인 동시에, 懷才不遇의 마음이 가득 차있는 진정한 “言志”와 “緣情”의 작품들이다. 이 같은 작품들은 六朝이후 柔弱靡麗한 문풍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초당 궁중에서 功德을 찬양하고 盛世를 誇張했던 文風에 대한 선명한 대비와 강렬한 충격으로, 새로운 문풍을 시작한 공로자 중의 한사람이다. 명대 陸時雍 《古詩境·詩境總論》에서 “왕발은 典雅하고 華麗하며, 양형은 剛健하고 質朴重厚하며, 노조린은 清新華麗한 文辭이며, 낙빈왕은 率直하고 平易하다(王勃高華, 楊炯雄厚, 照隣清藻, 賓王坦易)”³⁴⁾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둘째, 낙빈왕의 詩文은 題材 내용상의 개척과 체제 형식상의 창조에서도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는 궁체와 궁정의 협소한 세계를 타파해서, 이른바 궁중 누대 전각의 소재로부터 江山과 변방의 사막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서, 진실한 사회현실과 변방 군대 생활을 묘사하여 唐代 邊塞詩의 시작이 되었다. 낙빈왕은 이별의 정,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의 심정, 풍경의 아

34) 時雍, 《古詩境·詩境總論》 文淵閣四庫全書1411(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83), 10쪽.

름다움과 懷才不遇, 관직의 추천을 위한 干謁 등을 묘사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기상과 풍격을 드러내어 정감표현과 구조설계, 典故의 운용 방면에서 새로운 특색을 갖추었다.

셋째, 낙빈왕의 詩文은 창작의 표현기법에서 계승발전의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의 詩歌 체제는 다양하고 풍부한데, 가행 악부 등의 고시와 5언 위주의 律詩·排律·絶句 등 근체시를 막론하고, 모두 계승과 발전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한 사물에 빚댄 서정에 능할 뿐만 아니라, “以詩爲賦”와 “以賦爲詩”·“以詩爲駢文” 등 문체 융합의 기교를 詩文 창작 속에 도입하였다. 이같이 문체를 넘나드는 시도로 詩文 창작의 표현기법에 폭넓은 영역을 개척하여, 唐代 詩文의 변영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특히 낙빈왕 문장이 아직은 완전하게 四六駢麗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실한 문학적 개조와 갱신을 통하여 지극히 정교하고 화려하며 과도하게 형식적인 폐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典雅하고 華麗함 속에서도 清新을 추구함과 동시에, 풍부한 내용과 제재 속에서 雄健함을 융합하려고 하였으며, 駢文에 자연스러움과 평범함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변문모습이다. 낙빈왕은 창작에서 이러한 탁월한 성취들로 唐代 文風革新에 지워지지 않는 공적을 남겨놓았다. 낙빈왕의 詩文은 확실히 杜甫가 지적한 “그들의 명성이 멈추지 않는 江河처럼 만세에 전해질 것이다(不廢江河萬古流)”로, 과거에 “浮躁淺陋” “華而不實” “輕薄爲文”이라는 비평은 하나의 편견이고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마땅히 새롭게 다시 살펴서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陳晉熙, 《駱臨海集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85.
 陳晉熙, 《駱臨海集箋注》, 台灣世界書局, 1981. 再版

- 黃清泉 注譯,《駱賓王文集》,三民書局,2003.
- 李善注,《文選》,文選研究會編,1983.
- 劉勰 周振甫注,《文心雕龍注釋》,里仁書局,1984.
- 《舊唐書》,鼎文書局,1981. 再版
- 《新唐書》,鼎文書局,1979.
- 陸時雍,《古詩境·詩境總論》,文淵閣四庫全書1411,台灣商務印書館,1983.
- 徐師曾,《文體明辨序說》,人民文學出版社,1998.
- 胡應麟,《詩藪》,上海古籍出版社,1979.
- 吳喬,《圍爐詩話》,中華書局,1985.
- 沈德潛,《唐詩別裁集》,上海古籍出版社,1979.
- 洪邁,《容齋隨筆》,上海古籍出版社,1996.
- 孫梅,《四六叢話》,台灣世界書局,1970.
- 駱祥發,《駱賓王評傳》,北京大學出版社,1987.
- 駱祥發,《初唐四傑研究》,北京:東方出版社,1993.
- 聞一多,《唐詩雜論》,上海古籍出版社,1998.
- Stephen Owen 張世厚 譯,《초당시》,중문,2000.
- 《中國歷代詠物詩辭典》,江西教育出版社,1992.
- 張仁青,《中國駢文發展史》,台灣中華書局,1979.
- 褚斌傑,《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大學出版社,1990.
- 任國緒,〈初唐四傑非浮躁淺陋之人辯〉《北方論叢》1984.3
- 白承錫,〈駱賓王賦研究〉,《中國語文學》49,2007.6.
- 安炳國,〈駱賓王詩研究〉,《中國文學》11,1984.

<中文提要>

由以上探討的結果,我們可以整理出以下幾個結論:

第一，駱賓王作為重要一員，社會底層出身，政治上無所依託，但才氣特出，性格豪放，所以把自己所有的一生表現在文學作品。就是，他的詩文都是對自己人生經驗和政治浮沈的寫照，同時充滿着懷才不遇之感，是真正的“言志”和“緣情”的作品。這些作品不但掃除了六朝以來柔弱靡麗的文風，對初唐宮廷之讚揚功德和誇張盛世的文風，也是鮮明的對比和強烈的衝擊。他是個開創新文風的功勞者之一，即陸時雍《詩境總論》所說“王勃高華，楊炯雄厚，照隣清藻，賓王坦易”

第二，駱賓王的詩文在題材內容上的開拓和體制形式上的創新方面，也非常令人鼓舞了。駱賓王打破了宮體和宮廷的狹小世界，所謂從台閣移至江山與塞漠，描寫真實的社會現實和邊塞軍中生活，成為唐代邊塞詩的開始。他描寫了離別之情，流浪他鄉之情，風景之美，以及懷才不遇，干謁推薦等等，也體現了新氣象和風格，在情感表現，結構設計，運用用典方面，具有了新特色。

第三，駱賓王的詩文在創作表現技法上繼承和發展的意義及價值。他的詩歌體制豐富多樣，就不管歌行·樂府等的古詩，還有五言為主的律詩·排律·絕句等近體詩，都有繼承和發展的一面。他既善於借物抒情，又把“以詩為賦”和“以賦為詩”·“以詩為駢文”·“以詩為駢文”等文體融合的技巧導入詩文創作中，而開拓了詩文創作的表現技法上之廣闊領域，促進了唐代詩文的繁榮和發展。尤其是，駱賓王的全部文章是還沒有完全擺脫四六駢麗的束縛，但是他通過認真的改造和更新，努力克服了極為精巧華麗·過度形式的弊端，且盡力追求清新於典雅華麗之中，同時試圖融合雄健於豐富的內容題材之中，給駢文帶來自然化和通俗化的特色，是一種新型的駢文風貌。駱賓王正是在創作上如這些卓越之成就，留下為唐代的文風革新作出不可磨滅的功績。駱賓王的詩文確實是杜甫所說的“不廢江河萬古流”，過去那種“浮躁淺陋”“華而不實”“輕薄為文”的批評，完全是一種偏見和誤解，仍該重新審視，給予公正評價。

주제어 : 駱賓王, 初唐四傑, 初唐詩文, 7言歌行, 邊塞詩, 詠物詩, 代李敬業
傳檄天下文, 書啓文

